

김정일, 열차에서 숨진 것 맞나

17일 아닌 16일 사망설 등 “북 발표 못믿겠다” 의혹 증폭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 서 김 위원장의 사망에 관한 북한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거나 불신하는 주장과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간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 날짜가 17일이 아니라 16일이라는 소문부터 김 위원장이 두 달 전에 이미 루테라로 사망했다는 확장한 과정까지 다양한 루머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이 급작스레 사망했고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에서 사망 사실을 발표한 터라 김일성 주석 사망 때처럼 발표 직후부터 타살 개연성을 비롯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김 위원장 사망 발표 당일인 지난 19일 그의 홈페이지에 “굳이 부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명하자 인터넷에서는 각종 루머와 괴담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20일 “북한의 발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일부 반론까지 제시함으로써 관련 의혹은 기존의 인터넷 루머와 맞물리며 증폭되는 양상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 사망 시점에) 김정일 전용열차가 평양·통성역에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김 위원장이 어디론가 가려고 (열차에) 탄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열차가 움직인 흔적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북한의 발표처럼 김 위원장이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아니라 통성역에서 대기 중이던 열차 안에서 숨졌다라는 얘기다.

북한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의 사망을 발표할 때 “12월 17일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급성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쇼크가 합병되었다”며 김 위원장이 달리는 열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발언 내용도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 위원장의 사망 장소 및 시점,

상황 등에 대해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애매하다”고 말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런 발언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정보력 부재’로 여론의 뜻매를 맞은 당사자의 ‘불타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발언의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16일 밤 평양 관저에서 사망했다’는 관련 접보도 인지해 진위를 주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탈북자단체는 “김 위원장의 사망시점을 17일이 아닌 16일로, 북한당국이 체제동요를 우려해 발표시간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반론도 적지

않다. 한 북한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대기 중인 열차에서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정일은 복수의 특별 전용열차를 갖고 있다”며 “통성역에 대기 중이던 열차가 아닌 다른 열차를 타고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일성 사망을 ‘집무 중 순직’이라고 미화했던 과거사례를 들어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서도 ‘달리는 열차 순직’ 등으로 조작했다는 게연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 사망을 들려싼 여러 의혹은 정부의 구체적인 확인 등이 나오지 않는 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은 채 한동안 논란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북 김정일 영정·추모소 전국 설치

영정, 김일성 사망때처럼 ‘태양상’ 지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정과 추모소가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 마련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2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담은 대형 영정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와 마찬가지로 ‘태양상’이라고 칭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태양상이 20일 김일성광장, 4.25문화회관 광장, 당창기념탑, 평양체육관 광장 등 수도의 여러 곳에 모셔졌다”며 “평양 교예극장과 하나을약정보센터 건물의 정면에도 태양상이 모셔졌다”고 밝혔다.

중앙방송도 영정 설치 소식을 전하면서 “천만 국민은 수도의 여러 곳에 높이 모신 장군님(김정일)의 태양상

을 우러러며 우리 장군님 그대로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은 동지의 영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 의지를 가다듬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전국의 노동계급과 지식인, 농업근로자, 청소년 학생들은 수령님(김일성)의 동상과 장군님의 태양상, 도시 이크벽화들, 추모장소들을 찾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며 지난 19일 낮 12시(사망 소식 보도시점) 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연 500여 명의 평양 시민들이 추모했다고 전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전국에 김정일 영정과 추모소를 금지 허설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김 위원장을 애도하기 위해 김 주석의 동상을 찾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평양과 각 도 소재지를 비롯한 북한 전역에 수백 개의 동상이 세워진 김 주석과는 달리 김 위원장의 동상은 전국적으로 2~3개뿐이다.

한편 조선중앙TV가 21일 낮 공개한 전날의 당·정·군 고위간부 참배 장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뒷자리에 김우경(47) 국방위원회 과장이 겸임한 국방부의 삼남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시 북한 군부의 실제로 부상한 리영호 군총참모장,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도 중앙군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 체제 안정에 역할을 둘 것”이라며 전망했다. /연합뉴스

“북 당 중앙군사위 중심 당면 현안 등 과도통치”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 위원장 사망 이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과도통치기구를 구성해 당면 현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노동당 중앙군사위는 북한 인민군을 관리하고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시 북한 군부의 실제로 부상한 리영호 군총참모장,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도 중앙군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제20대 국회의원 김정은은 “우리가 김 위원장의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을 조망하는 것은 인민들의 손으로 독재자를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언론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모두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이 안타까운 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닥에 김 위원장의 사망을

김정은 부인?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뒷자리에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서 있다. 이 여성은 김정일 위원장의 딸인 여정이거나 김정은 부위원장의 부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英 탈북자들 ‘사망 축하’ 유인물…북 대사관 진입시도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20일 오 후(현지시간) 주영복한대사관 현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상화와 사망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이고 건물 진입을 시도해 북측 인사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탈북자들은 “우리가 김 위원장의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을 조망하는 것은 인민들의 손으로 독재자를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언론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모두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이 안타까운 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국 경찰은 김 사무총장 등을 경찰 차량으로 데려간 뒤 경위 설명을 듣고 풀어줬다.

한편 32개 탈북·북한인권단체로 구성된 ‘독재자 김정일 조문반대 탈북단체 비상대책회’ 회원들은 21일 경기도 파주시 일진각 맘방울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비닐 풍선 5개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전단에는 리비아 시민 혁명과 카다피 사망 등 북한 3대 세습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포인트추나요법	호수통신	?! 임동 삼일의원 뒷골목	장어사랑	장흥정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봉선동 1036-6번지 모아1차@사거리 운동처방, 목, 허리, 어깨, 다리 치료 (월~일, 주·야간) ☎(062)651-9030	두암동 미라보@사거리에서 아파트방면 50M SK, KT, LG스마트 공짜폰 많음 대표 정수지 ☎(062)269-9971	각종선물세트, 행사용품, 담배풀 대표 나경원 ☎(062)470-5559	평암동 1189-9번지 성당맞은편 국내산民물장어, 즉석 소금구이 전문 대표 강세근 ☎(062)654-3392	서구 회정4동 806-9번지 유황오리 불고기 전문점 대표 서효숙 ☎(062)384-5255	
손큰회포차 서구 쌍촌동 1199-7번지 쌍촌kt 옆 산낙지회, 매기탕, 병어조림 <점심메뉴-동태탕> 회 포장 됩니다. 대표 문정매 ☎(010)2809-5673	예향근로자대기소 북구 우산동 554-19번지 건설근로자대모집, 토목, 건축 인테리어 상담을 환영합니다 대표 이근철 ☎(010)9262-0547	굿바디허브영양다이어트 북구 중흥동 269-20 (평화면선입구) 비만관리, 세포영양, 어린이 영양간식 60년근 평화 흥삼, 체지방무료조정 대표 한명숙 ☎(010)6620-6119	황해건강원 상촌동 1226-6 상무2동 주민센터옆 장이집, 봉어집, 가물치집, 흑염소 각종과일집, 구지뽕, 흥삼 대표 봉형호 ☎(062)401-1113	만나왕족발 양립동 휴먼시티2단지입구 맞은편 왕족발제조업체, 주문즉시배달전문 셋트메뉴24,000/20,000/29,000/25,000 ☎(062)671-0994	메기대마왕 광산구 쌍암동 CGV건너편 민물요리 전문점 대표 손주식 ☎(062)971-8287	골드리치 학동 삼익세리마@후문앞 금거래소, 예물전문, 귀금속상담 대표 신환이 ☎(062)228-8285
린나이무등상사 동구 학동 시외버스정류장앞 린나이 가스렌지전문 취급센터 대표 정진희 ☎(062)223-3652	히미쯔(구.동남다방) 광안동 60-1번지 구.동구청앞 식사, 커피, 흥삼꿀차 비빔밥·황태·장국, 누룽지·자崇拜하고 맛있게! 대표 이해령 ☎(062)222-5303	엘리쉬 수완동 1423번지 롯데리아 8층 신개념 프리미엄 즉석 샐러드바 대표 김주영 ☎(062)955-4664	오치동우체국 오치동 사거리 새롭게 봉사합니다. 국장 박향배 ☎(062)267-1375	미소디자인 오치동 95-22번지 오치우체국과 시장@입구 각종인쇄물, 실사출력, 간판현수막전문 대표 정민식 ☎(062)265-4333	조봉순상무국밥노대점 노대동 휴먼시티6단지정문 한도레마트 뒷편 곱창구이·곱창탕·설렁탕·비빔밥·마리고기·탕·리순대 모듬국밥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대표 서창선 ☎(062)652-9265	두암골이삿짐센터 북구 두암동 린악국물목 사거리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각종자재 농수산물운반 고총시리리보유 ☎(011)603-5120
무진보 동구 금남로2가 7-3 카톨릭센타워편 오리요리명가 단체손님에 약화영 대표 이명옥 ☎(062)523-5292	종로검정고시학원 대의동 71-4 전일빌딩뒤 문학전당비로연 성년학원, 오전·오후·야간반 검정고시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원장 이재운 ☎(062)226-2227	커피홀릭 동구 총장로3가 1101이프유정문 건너편2층 직접 봄아 신선한 커피 대표 김현오 ☎(062)229-0230	송월타월 두암동 두암동성당입구 티월, 우산 도·소매 각종행사, 판촉물 낭품 전문 대표 손광용 ☎(062)265-7766	자연그리고머리풀경 두암동 두암대후문사거리 청명면선포 미용개장인 특별팀은 미용실 SBS 모닝아워드 영상 천연재료 풍미·종류별 색상선택문/OPEN 가발인행사 종파 20,000원·중급액 15,000원·저급액 5,000원 ☎(062)266-8121	튀김먹자 양립동 기독교병원길 서양새미을금고옆 오징어튀김, 상추튀김, 고구마튀김 대표 김보경 ☎(062)234-7259	한길정보통신 백운동 백운초등학교 정문앞 육교옆 컴퓨터조립, 컴퓨터관리 및 A/S,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및 CCTV 설치·판매·설정·점검 대표 신진용 ☎(062)675-9077

中 발빠른 대처…한반도 ‘기선잡기’

후진타오 주석 등 수뇌부 단체 조문 ‘후견’ 자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필두로 수뇌부가 베이징(北京)의 북한 대사관을 찾아 단체 조문하는가 하면 중국 외교부는 주변국과 잇따라 접촉하면서 불상사를 방지하려는 ‘예방외교’에 나선 모습이다. 북한에 대한 ‘후견’을 자처한 형국이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김 위원장 사망 발표 다음날인 20일 한국, 일본, 러시아 외교장관과 연달아 전화 회담을 했다. 갑작스런 변고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안갯속에 빠져든 가운데 냉정하게 접근하자는 요지였다.

여기에는 장래 절차를 진행 중인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어 보인다.

같은 날 오전 후 주석은 우방귀(吳

과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이 ‘포스트-김정일 체제’로서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부 부위원장으로 최고 지도자로 공식화한 게 곳곳에서 감지된다. 발빠르게 새로운 북·중 관계 정립에 나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충분한 후계수업을 거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권력을 승계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대내외적인 리더십 확보가 중요한 김정은은 부위원장으로선 중국의 전면적인 ‘후원’이 절실했던 상황이다.

중국 역시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를 차단하면서 대북 영향력 확대라는 전략적 이득을 향길 수 있다.

베이징 외교부에서는 중국의 이런

잰걸음 대응을 ‘기선잡기’로 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